

프로폴리스의 위력

-지난호이어서-

두리원 대표 김해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9. 백혈병과 암

2. 백혈병이 낫다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재원(3살)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느냐”고 했다. 백혈병에 프로폴리스가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지 프로폴리스가 백혈병에 좋습니까? 하고 물어 왔을 때 “국내에서는 아직 백혈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미조쿠찌(치과의사) 박사가 자신이 암 말기 때 프로폴리스로 병을 고쳤고, 어린이 백혈병 환자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면서 프로폴리스를 보급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치유율이 높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금 수 백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책 내용보다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은 프로폴리스밖에 없습니다.”하고 프로폴리스와 꽃가루를 같이 주었다. “프로폴리스가 백혈병에 직접 공격하는 공격부대라고 하면, 꽃가루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포부대입니다. 전방 공격부대와 후방부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때 적을 무찌를 수 있듯이 인체도 똑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집 큰 아이의 생각이 되살아 났다.

생후 4개월 때부터 병치레를 하여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집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짝 퍼져 있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집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짝 퍼져 있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었다. 이때 대구 사대부고 앞에 있는 오소아과에 갔더니 이 아이에게는 약이 필요없고, 영양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방법이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이것이 우리집 애의 병을 고치는 처방이 되었다. 3살까지는 사진 찍은 것이 없고, 국민학교 1학년까지는 백일해, 경부임파선 등 모든 병을 다 갖게 되었다. 허약한 체질 중에도 가장 약한 체질이었다. 그 애의 투병 기록이 「건강으로 가는 길」(필자의 저서, 두리원)p.127에 나와있다. 지금은 우리집에서 가장 건강

한 대학생이다.

제품을 주기 전 먼저 제품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세상에 제실 때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문제점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사랑해 주셨던 주님께서 민재의 병도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광명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하는 기도를 드린 뒤에 주었다.

성인 1개월의 분량이지만, 민재에게는 4~5개월을 먹일 수 있는 양이었다. 그해 12월달에 민재가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면서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 주었다. 민재가 건강을 되찾은 후 의학적으로 확실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 갔더니 “전에 나왔던 백혈병은 오진이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때론 오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저는 오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폴리스가 우리 민재를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치레로 다시 찾아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의 체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집 아이가 사경을 헤어 났을 때 오소아과 원장님을 한번 찾아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74년부터 가졌지만, 지금까지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원장님의 연세가 50대 중반이었다.

약 한첩, 주사 한 대 주지 않고, 조연의 한 마디로 고치게 하였던 오원장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시겠지만, 찾아뵈옵지 못하고 있으니...

3. 백혈병 환자 성덕군

프로폴리스에 대한 원고를 쓰고 있는 중에 백혈병 환자 성덕군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매스컴을 통해 크게 확산되고 있다. KBS 방송국에서는 5시간이나 생방송을 하였고, 3군 사관학교 생도들도 출선해서 골수이식을 위한 검사에 동참하고 있다.

바우만 성덕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살려야 한다. 그는 3살 때 우리들의 손에 의해 버려졌던 입양아이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올 수 있는 갈등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 미국인들도 들어가기 힘든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간 4학년 생도이다.

그이 모습도 당당했지만, 그의 건전한 정신력도 자랑스러웠다. “이 고통도 순간적으로 올 수 있는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저 성덕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었다. 그는 키워준 양부모들의 신앙관도 투철하였고,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항암제를 맞고 있기 때문에 하루 15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 그와 동일한 골수를 국내 현역군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골수이식은 순조롭게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도 몇 단계 검사를 거친다. 보통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미조쿠찌 박사의 말과 같이 “골수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에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때문에 죽는 어린이가 많다”고 한 말이 이해할 수 있다.

형제 중에도 골수이식을 할 수 있는 확률은 25%이고, 성공률은 80%, 다른 사람의 골수이식을 했을 때는 70%선이라고 한다. 좋은 쪽으로 확률이 나올 때는 다소 높게 나오고, 나쁘게 평할 때는 낮아지는 것이 보편적 통계수치이다. 그렇지만, 성덕군에게는 100%의 성공률만 생각하게 된다.

성덕군이 15시간을 자야한다는 것은 항암제로 인해 오는 피해를 다소 줄이는 데 필요한 시간이다. 항암제나 방사선은 나쁜 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어지고, 저항력 약화는 필히 따른다. 긴 수면을 취해 줄 때 체내에서 만들어 주는 미량 영양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저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성덕군은 공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만도 막대할 것이다. 음식은 공군생도들이 먹는 높은 칼로리의 2차 식품들이다. 그에게 2차 식품이 아닌 병의 치유력을 갖고 있는 1차 식품들을 먹어준다면 방사선의 해독도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필자는 완전 1차 식품들을 먹어준다면 방사선의 해독도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필자는 완전 1차 식품은 아니지만, 절반은 1차 식품을 먹고 있다. 그 결과로 15년간 주사 한 대 맞지 않고 생활하고 있고 감기가 걸려도 아스피린 2알이면 낫는 체질로 바뀌어져 있다. 그렇다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15년 전만 하여도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되는 몸이었고, 감기에 걸리면 10일 안에 낫지 않았던 몸에 비하면 너무나 큰 변화다. 음식과

질병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의사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정형외과 전문의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을 전공한 의사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음식을 가릴 것 없이 무엇이든 먹으면 된다”고 하는 강연을 들었을 때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 “당신이 무엇을 먹었을 때 고통이 더 심했습니까?”라고 물으면 돼지고기, 닭고기, 버터, 치즈를 먹었을 때 더 아팠다고 말할 것이다.

그 음식물이 무엇 때문에 더 아프게 만드는가? 하고 영양학에 관해서 연구하였다면 그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의사들 중에서 성덕군에게 1차 식품을 권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프로폴리스는 건강한 세포를 해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몇 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다. 의사들 중에 자연의학을 연구한 의사들이 많아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바우만 성덕군은 건강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가 역경을 딛고 미국 공군 사관학교의 생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족과 흡사한 것이 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굴하지 않고 밟혀도 잔디나 질경이 같이 되살아나는 민족이었다.

일본이 한국을 함방시킬 때 일본을 시찰하였던 친일파들에게 일본과 조선을 100년의 차이가 있지만,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되면 조선도 일본과 같이 문화국이 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함방시켰지만, 그들이 40년간 이 민족에게 준 것은 탄압과 억압뿐이었다. 그들이 비행기를 만들어 낼 때 우리는 자전거도 만들지 못했고, 그들이 자동차를 만들 때 우리는 칼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 남은 공장들 마저 잿더미로 화해 버렸다. 이때 서방기자들은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못하는 국가로 전락되었고,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혹평을 했지만, 실지 근거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국가 건설에는 지하자원이나 축적된 기술,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두가 없는 열악한 국가였다. 그런데 해방된 지 50년만에 그것도 준전쟁 국가에서 무역거래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은가.

성덕군은 그 민족의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조종키를 잡고 미국의 푸른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 열망하고 있다. 그 뜻은 꼭 이루어 질 것이다.

4. 세포 증식에 입증된 프로폴리스

국민의 경제생활이 향상되면 식품 가운데서도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 찾게 될 때는 화학약제 보다는 생약제를 요구하게 되고, 생약제 가운데서도 부작용이 없는 것을 더 찾는다. 이것도 국민의 지식과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더 심하다. 경제 수준이 높은 일본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이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양대 의학을 접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도 큰 몫을 차지했고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급속히 밀려온 합성 의약품들의 피해를 어느 나라보다 더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천혜의 물질인 봉산물을 세계에서도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다.

프로폴리스가 일본에 알려진 지도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94년도 건강식품 판매고 중에서 최고치를 차지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는 의사나 학자들이 없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의학자, 의사 약사 자연의학 연구자들이 수백명이 된다.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는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 있다.

위생 연구소 일본 암학회에서 프로폴리스가 암세포를 죽이는 성분이 있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 후 동경 의과대학과 자치(自治)의대병원 등에서 암환자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프로폴리스에서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임파구의 증폭작용을 돕는 성분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항암제를 장기 사용하면 약의 부작용에 의해 백혈구가 감소된다. 그러나 프로폴리스는 백혈구의 감소를 억제시킴으로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나왔다. 발암 물질을 갖고 쥐에게 간암을 유발시킨 뒤에 프로폴리스를 직접 투여해서 실험했을 때 60%는 암의 증식이 억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94년도 3월에 개최되었던 일본 약학회 구마모토 대학 약학부에서는 프로폴리스가 간세포에 증식작용이 있다는 실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프로폴리스에서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종양, 항염 작용 항산화 작용 및 면역증강까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지만, 쥐의 간세포 증식 작용도 인정되었다. 프로폴리스에 의해서 케르세틴, 플라보노이드 계피산, 유도체(TLO법) 등을 함유한 뒤 간세포를 분리해서 세포증식 능력방법을 MTT방법으로 검정하였다. 그 결과 프로폴리스(100 μ g/100 μ l)는 강력한 세포증식 능력이 있었고 24시간 배양하였을 때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여 5배나 세포증식 능력을 나타내었다. 또 프로폴리스는 Thyroxine, Ohymotryin, Cathepsin B 활성화에 대하여서는 강한 저지 작용을 보였다.

5. 방사선에도 효과 있는 프로폴리스

방사선의 적당량이 환부에 조사(照射)되면 치료에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방사선 발견 직후부터 알려졌지만, 실지 적용된 것은 1920년부터다. 방사선이 생체에 방사되면 파괴작용을 일으킨다. 이것이 한계선을 넘게 되면 세포의 사멸과 붕괴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암, 각종 종양, 피부병에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의 장애는 감수성이 예민한 부위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 부위가 피부다. 방사선의 일단계에 속하는 300r(렌트겐)에서는 탈모현상이 일어나고, 2단계 500r에서는 홍반, 3단계 800r에서는 수포현상, 1000r에서는 궤양성 증세가 나타난다.

화상을 입었을 때 1도, 2도라는 수치가 있듯이 방사선에서도 도수가 있다. 방사선 1도에서는 탈모 색소 침착 증세가 보이고, 2도에서는 건성 피부염, 3도에서는 습성 피부염, 4도에서는 피부가 괴사하여 궤양을 일으킨다.

키예프 방사선 연구소에서 만든 프로폴리스 연고를 2도 화상에 사용하였을 때 물집도 생기지 않고 상처의 흔적도 없이 나았다.

의학이나 공업에 X선이나 감마선을 상사용 경우 피부에 직접 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병으로 나타난다. 방사선 요법으로 2,500~8,000r 조사를 받으면 장애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 이때에 프로폴리스 연고를 바르면 방사선에 의한 궤양성 염증도 점점 작아진다. 이것을 사전에 발라 두었을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키예프 방사선 연구소 4명의 연구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증명되었다.

1. 방사선 치료에 앞서 프로폴리스 연고를 사용하면 피부를 보호한다.
2. 방사선 치료에 의한 피부장해도 프로폴리스 연고를 사용하면 회복되고, 치료를 계속할 수 있다.
3. 방사선 치료에 의한 피부궤양이 생겼을 경우 전기요법과 프로폴리스 연고를 사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4. 방사선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프로폴리스 연고를 사용할 것이다.

1986년 소련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키예프 지방에 있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는 안전성의 필수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상 최대의 사고였다. 이 사고로 31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스웨덴 등 이웃나라에서도 우유나 채소에까지 방사능이 오염되었다.

방사선 누출 사고 때 소련 원자력 연구소에서 만든 프로폴리스를 환자들에게 복용시켰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프로폴리스를 복용시켰다는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그러한 발표를 하였을 때 서방 세계에서는 '소련이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해 있어도 의학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고 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프로폴리스가 아직까지는 범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물질은 아니다.

프로폴리스의 연구는 동구 공산권에서 먼저 시작하였지만, 소련에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 할 정도다. 그러나 방사선에서 오는 후유증 치료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 보다도 앞선 나라다. 그러한 나라에서 방사선 누출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방사선 연구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리어 이상한 일이다.

소련 공산주의 사회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어느 힘있는 기관에서 여기에 관한 자료를 얻으려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호에 계속-